

고창 - 서울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

서울시 초대받은 고창지역 중학생 자유여행 · 뮤지컬 감상 등 문화체험 참여

고창군과 서울시가 활발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고창-서울 청소년 문화교류활동'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고창중학교 중학생과 교사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일원에서 3박 4일간 '2018 놀러오랑게, I SEOUL U'로 진행됐다.

고창군과 서울시의 우호협약에 따라 2015년부터 추진돼 온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은 올해 4년째로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해 운영됐다.

첫날 청소년들은 마포수련관에서 대학생 멘토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별 자유여행을 위한 기획 회의를 했으며, 명보 아트홀에서 소방관 훈련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파이어 맨'을 감상하고 배우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둘째 날은 자유여행 시간으로, 조별 멘토들의 인솔 아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명동, 대학로, 동대문, 홍대 입구, 경복궁 등 서울시내 곳곳을 탐방하고 방 탈출 게임 등의 체험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수련관에서 신나는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했다.

셋째 날은 오전에 상암 DMC에서 VR(가상현실)체험과 게임경기장을 관람했으며, 오후에는 롯데 월드 테마파크와 극장에서 제일 높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서울의 멋진 이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쳤다.



고창군과 서울시가 활발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네째 날은 틈틈이 적은 청소년들의 소감을 토대로 구성된 짤막한 연극 릴레이인 '더 라디오'를 감상한 후, 3박 4일간의 활동 영상을 보고 소감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활동에 참여한 김준서(고창중 3)학생은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고창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며, "곳곳을 누벼보니

서울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교류 등 질 높은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시야를 더욱 넓히고,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가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남원서,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20일 오후 5시 경찰서 4층 민인홀에서 서장과 간부 및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배석기)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조휴익 청문감사관이 출연한 '8시내고향' 영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경찰서가 진행했던 활동사항인 주민 공간 수사 활동(강력사건 100% 검거),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활동(공중화장실 안심벨, 로고젝터 설치, 우수시설 원룸 인증패 부착),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활동(범죄 피해자 지원, 배회감지기 배부, 불법카메라 점검), 주민공감 교통활동(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사고 ZERO 유지)등을 발표하는 등 시민공감 치안활동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서, 피해자보호활동 정착위한 전직원 교육 가져

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27~28일 양일간에 걸쳐 피해자보호관을 포함 전직원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직무범위에 명시됨에 따라 각 기능별 팀장들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실시됐다. 피해자보호관은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사건처리과정 2차 피해 예방, 상담, 피해자 전담 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익산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학 시기를 맞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점단속 항목을 선정,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익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통고장과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어플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식 카메라 및 캠코더를 활용한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단속을 펼친다.

/익산=우병희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공중보건조사 직무교육 실시

순창보건의료원에서는 공중보건조사사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필히 행하고 있다.

30일 순창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순창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조사사는 28명이고, 그중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조사사는 14명으로 보건지소별로 내과 10명과 한의과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화 되고 있는 의료취약지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과 복무교육 실시 및 보건지소 환자 사례관리, 공중보건조사 상호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 보건지소 공중보건조사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내과진료, 예방접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한의약 재택진료 등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진장소방서, 국제화교육센터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30일, 무주 국제화교육센터에서 원어민선생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안전교육은 교육센터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 위치를 모를 경우 119에 신고하는 방법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 △자동제세동기 사용법등을 보고, 듣고 체험해보고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해 실습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을 받은 무주 국제화교육센터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특히 긴급상황시에 내 위치를 모를 때 119에 신고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서, 인권보호향상 위한 순회 간담회 가져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에서는 인권침해 및 의무위반 사례 전파를 통한 비인권적 침해 사전 예방과 의무위반 행위 미연 방지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서 청문기능 주관으로 30일 경찰서 경무과를 시작으로 매주 2회 날짜를 지정, 경찰서 각 기능 및 파출소를 순회하면서 과거 경찰의 비인권적 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와 최근 발생한 경찰관련 주요 의무위반 사례를 전파하여 순창경찰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자 간담회를 실시 하고 있다.


김태형 서장은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인권보호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매사 업무에 임할 때 인권을 생각하고, 더불어 개개인 스스로를 잘 다스려 퇴직하는 순간까지 의무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올바른 공사생활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